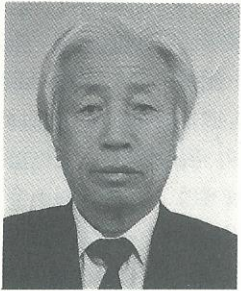


충효로 근본을 삼고 경학으로
업을 삼아 욕된 관작과 영달을
구하지 말라.

開窩公 遺戒

坡州廉氏宗報

發行人 廉珪澤
編輯人 廉宗桓
編輯委員 東右, 秀東, 敬燮, 泰鎬
文圭, 南燮, 基瑯, 明善
發行處 (坡州廉氏大宗會)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30의 2 2층
전화: 714-6223 야간: 929-5626
印刷所 현대종합문화사 代表 鄭仁基



일꾼을 기다리며

전국에 계시는 일가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유다르게도 기후
가 변덕스러워 유사 이래의 대
홍수로 전 국민의 피해가 컸
고 정치가 혼매하고 경제가
불안정하는 등 시련이 커서
희망된 화제가 보이지 않던
계절이었습니다.

2002년 4월 13일 실시된
大宗會 정기총회 때만 해도
주의제였던 임기만료된 全任
員을 개선함에 있어 특히 회
장직 개선에서 大宗會를 위해
성심껏 일하시겠다는 책임자
가 나오지 않아 임원 구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총
회 정관에 의해 회장직은 한
번만 중임하도록 되어 6년의
전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만
믿고 저는 총회 전에 전국의
유지 일가분들에게 의견도 수

렴해 보고 또 회장직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하
며 총회에 임하였으나 우선
大宗會의 대표적인 會長을 하
시겠다는 분이 나오질 않았
고, 또 몇 분이 추천되었으나
한사코 사양함으로써 회의 진
행이 난감해졌던 차에 고문이
신 在均, 基奉 두 분을 위시
한 몇 분의 일방적인 추천과
모든 임원분들의 합의로 정관
제7조(임기)의 단서(회장은
1회에 해서 중임할 수 있으
며……) 규정의 적용을 일시
유보할 것과 본인이 임시 회
장직을 수행하기로 합의 결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6년의 임기동안 괄
목할 만한 업적도 없이 현상
유지 차원에서 늙은 몸을 채
찍하여 일해 오며 이제는 좀
쉬려고 했었는데 여러 임원분
들의 간곡한 추대로 또 회장
이 되었으니 수명이라 여기고
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힘써야 할
인은 새 회장을 모시는 일입
니다. 의욕과 활기가 넘치는
새 분을 모셔 신선한 새과제
를 설정하고 大宗會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
며 그때까지라도 많은 일가분
들을 의욕적으로 모이게 하고
화합으로 상호 친목을 다짐하
고 새 사업을 합의하여 설정
해서 추진할 생각이오니 일가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충고
해 주십시오.

특히 동해안과 김해지역에
서 수해를 입고 어렵게 복구
에 힘쓰시는 일가 여러분, 힘
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드리고 하루 속히 굳건하
게 재기하시기를 빌며 타지방
일가 여러분과 함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일가여러분 건강하시고 희
망을 갖고 알찬 성과를 거두
시기를 기원합니다.

壬午 孟冬

大宗會長 廉 珪 澤

2002년도 예산

수입지부

항 목	2001년도	2002년도
이 월 금	2,609,589	3,961,979
기 금 이 자 수익에서	5,000,000	3,000,000
임 원 헌 성 금	5,000,000	(5,000,000)
종 보 간 행 지원	1,000,000	(1,000,000)
종 보 광고 수익	500,000	(500,000)
계	14,109,589	13,461,979

지출지부

항 목	2001년도	2002년도
전 화 요 금	500,000	400,000
사 무 비	600,000	400,000
출 장 비	600,000	300,000
회 의 비	1,500,000	1,200,000
향 축 대	1,500,000	1,400,000
종 보 간 행	2,000,000	2,000,000
경 조 비	1,200,000	0
거 마 비	3,600,000	3,600,000
사 무 실 유 지	500,000	300,000
세 금	400,000	100,000
강 화 향 사 지원	0	1,000,000
잡 비	300,000	300,000
예 비 비	1,409,589	2,361,979
계	14,109,589	13,461,979

각지역 향사일

(2002年 壬午)

사 우	향 사 의(우편)	의 치	시 의	의 조 과
-----	-----------	-----	-----	-------

大宗會 소식

1. 2002년도 정기총회

과주 염씨大宗회 정관 제 13조(총회) 가항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13일 11시부터 12:40간 서울, 용산에 있는大宗회 사무실에서 대의원 30명이 참석하여 가졌다.

가.大宗회 소유 부동산중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70~78번지에 있는 임야 140㎡가 지번이 265의 2로 대지 140㎡로 정정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강화군청 민원문서 13520~10068에 의거)

나. 전년도 감사보고(적정)를 마치고 2001년 회계결산안 총액 13,809,589원의 승인과 2002년 도의 회계예산액 13,461,979원을 심의후 확정 결의하였다.

다. 강화사단의 관리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매년 약 100만원의 경상비가 부족했

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대종회 경상비 예산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 결의하였다.

2. 2001년 대종회 종보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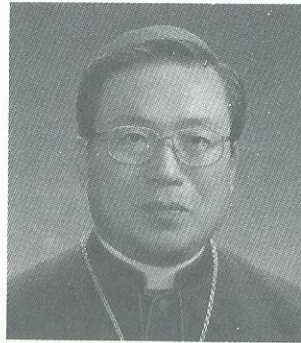
2001년 11월 10일부로 대종회 종보 제14호를 2,000부 발간하여 영천, 나주, 강화 등지 향사때 직접 각 200부씩 배포했고 각 지역 종친회와 각 임원을 비롯한 일가분에게 고루 우송하였다.

기 타 사 항

1. 廉洙政 主教로 서품

2002년 1월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좌석을 메운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두 분의 신부(염수정, 이한택)에게 主教로의 서품식이 있었다.

우리 坡州廉門에서는 처음으로 주교에 서품된 廉洙政 안드레아(癸未生 20世) 주교는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 총대리직을 맡고 있다.



염수정(안드레아) 주교

부친 漢鎭, 모친 水原 白氏 사이의 5男1女중 3男으로 안성에서 출생하여 가톨릭대와 동大學院을 수료했고, 四男인 洙完, 五男 洙義도 神父이다.

2. 서부 경남지역 종친회 발족

2002년 9월 15일 서부경남지역(거창, 함천, 함양, 산천 지역군)에서는 약 40명의 일가유지가 모여 이 지역 종친회(가칭 과주염씨 서부경남 종친회)의 발족모임을 가졌다.

盤溪影堂	3.28 (2/15) 木	경남, 함양	충경	유림
龍江祠	4.19 (3월초丁) 金	옥천, 군북	충경, 국파, 동정, 청강. 7위	문중
忠敬書院	4.17 (3/5) 水	나주, 삼영	충경, 국파, 청강. 충5위	유림
錦江祠	4.22 (3/10) 月	나주, 송월	충경, 국파. 7위	문중
淸溪影堂	4.27 (3/15) 土	보성, 문덕	충경, 국파. 5위	문중
龜淵祠	4.27 (3/15) 土	청도, 금천	충경, 국파. 5위	유림
柳川祠	5. 1 (3/19) 水	회순, 이양	퇴은당. 4위	유림
江華祀壇	4.28 (4월중) 日	강화, 선원	충경, 국파, 동정, 청강	대종회
水絃祠	10.16 (9월중丁) 水	보령, 미산	충경. 3위	유림
永川도선산	11. 7 (10/3) 木	영천, 금호	재상, 국파, 경은	대종회
羅州祀壇	11. 9 (10/5) 土	나주, 삼영	충경. 7위	문중
忠義祠	11.19 (10/15전후) 火	통영, 정양	참의. 11위	문중
孝坪祠	11.18 (10/14) 月	대전, 효평	충경, 국파, 청강	문중

大宗會 任員

(2002. 4. 13 선임)

고문	在均, 鍾建, 基奉, 琦燮, 吉燮, 東畧, 洪燮, 德洙, 普鉉	감사	相國, 明善
자문	昌鎭, 相顯, 宅相, 鳳哲, 東石, 相守, 京根, 洪太, 鍾洙	이사	在郁, 永勳, 燮載, 東根, 圭正, 學光, 圭顯, 東輝, 英哲, 南燮, 基瑢, 文圭, 泰鎬, 泰求, 基範, 圭鎬, 亢燮, 東三, 正水, 圭坤, 完培, 相福, 相天, 圭弘
회장	珪澤		
副會長	吉榮, 泰模, 炳斗, 東浩, 錦燮, 東鎭, 宇權, 燮鎬, 東洛, 尙述, 車澤, 秀一		

忠敬公 梅軒先生 忠孝錄

— 사위 鄭熙啓 —

全南每日신문 2000년 3월3
일자 5면 신효자열전에 “坡州
廉氏 曲城府院君 廉悌臣” 題
로 이 신문 정철(지역사회팀
장) 부장과 양권승 박사(연세
대 국학연구회) 두 분이 쓴
글이 실려있다.

內容은 忠敬公의 셋째 사위
되는 良景公 慶州鄭公 熙啓가
쓴 “忠敬公 梅軒先生 忠孝錄”
에서 인용한 글이다.

이 글은 우리 門中에서 發
行한 1986年 丙寅의 大同譜
文獻錄에도 原文과 그 번역문
이 실려있어 우리 일가분들도
대부분 읽어보았으리라 믿어
지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 아쉬
워 다시 한 번 그 내용의 개
요를 새기고자 한다. 忠敬公
의 빛나는 功勳은 역사서를
통해도 알 수 있지만 孝를 강
조한 글은 이미 알려진 자료
중에서는 唯一한 귀중한 자료
임을 밝혀둔다.

옛부터 忠臣, 孝子가 많았
지만 忠孝를 겸한 사람은 드
물었으나 忠敬公 廉悌臣은 둘
을 겸한 사람이다.

고려 忠烈王 30년(서기
1304년) 甲辰 10월 戊申日
에 出生할 때 자주빛 서기가

어 입맛이 없으실터이니 드시
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묻자
웃으면서 먹고 싶은 것은 있
기는 하나 네가 구할 수 있느
냐며 오이가 먹고 싶은데 제
철이 아니라 어찌하겠는가 라
고 하였다. 公은 즉시 동쪽
의 이웃 오이 재배하던 집을
찾아가 사연을 말하고 오이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인은 3월
인데 지금 철에 오이가 어디
있겠느냐며 모두 웃고 외면하
였다. 그래도 오래토록 가지
않고 졸라대니 간절하고 애처
로워 또 평소 효성이 지극하
다는 소문을 아는지라 오이밭
을 찾으니 시든 넝쿨 속에 제
철처럼 파란 오이가 달려 있
었다.

모두가 기이하게 여기고 오
이를 따 주었다. 오이의 효
염으로 얼마동안 편안했으니
어찌 효성의 소치가 아니겠는
가. 얼마 후 부친의 병이 다
시 무거워져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도 병이 회복하기 어렵다
는 것을 알지만 公의 지극한
효성을 듣고 요행을 믿으며
말하기를 흰까지 알을 구해서
쓰면 효험을 볼 수 있으나 어
찌 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
였다.

陸橘이 겨울에 꺾을 얻은 것
만 대단한 게 아니라오. 여
섯 살 아이가 이와 같이 하였
으니 세상에 누가 놀라지 않
으리오.)

中國에서 옛날에 王祥, 陸
績, 孟宗이 孝行을 이룩한 나
이가 6세 이전이었는지가 궁
금하다.

그러나 天命은 어찌할 수
없는가. 부친 中顯公은 己酉
(1309년) 11月28일에 別世
하니 公은 시신 옆에 머무르
며 너무 애처롭게 통곡하고
상사의 제 절차에 반틈없었기
에 보는 이 마다 놀라고 그
지극함에 감동하였다.

10세가 되어 모친은 公을
元나라에 있는 고모부 末吉의
옆에 가서 修學하도록 하려는
데 公은 母親이 염려되어 가
기를 사양하였으나 어머니의
간절한 권고로 마지못해 가서
修學에 專念하였다. 公이 옛
사람의 훌륭한 말, 착한 행실
과 忠孝의 글귀를 보면 여러
번 읽고 되새기며 漢書를 읽
다가 霍光이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운 일에 이르러
서는 놀라며 신하로서 할 일
이 아니라 하고 광광같은 忠
臣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告하니 고모부는 詩를 지어
公의 孝行을 칭찬하였다.

惟君至孝天翁知
一棹中流導不遲
且教海若平危浪
能使飛廉止酷威

(그대 지극한 孝誠 하늘이 알
아 종류에 들어간 배 쏜살같
이 이끌어주고 바다를 시켜
높은 파도 멎게 하며 풍신시
켜 심한 바람 그치게 했네)

公은 元에서 수학한지 10
여년만에 學德과 器局이 성취
되었다. 이때 고모부께 고하
여 돌봐주신 것에 인사를 표
하고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
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허락해 주었다. 이때
元의 禿古阿利(독고아리)가
詩를 지어 전송하였는바,

四千里外東歸客
二十年來北學人
男兒肯老區區域
異日觀光上國賓

(4천리밖 동쪽으로 가는 나그
네 20년 동안 북에서 배운
사람이시오. 장부가 어찌 小
國에서 늙을 수 있겠는가. 훗
날 上國에 와서 벼슬하게나)

귀국하여 公은 完山君 裊公
의 딸에게 장가들어 부인과
함께 母親을 봉양하였는데 부
인도 公의 효성에 감동하여
하찮은 채소라도 좋은 것만
가려 시어머니께 드리고 하였
는데 일찍 別世하고 醴泉府院

서명하지 않았다면 王도 서명
하지 않을 만치 믿고 신임하
였다.

나라안의 上下 신하들과도
親和하여 하는 일이 원만하여
더욱 王도 신임을 깊게 했다.
그러던 中 忠肅王이 승하한
후 癸未年(1343년)에 召命을
받고 元에 가니 丞相 別哥不
花가 크게 쓰러 하였으나 또
母親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
고 황제께 청하여 허락을 얻
고 귀국하여 衣帶를 벗지 않
고 온갖 정성으로 간호하는
것을 보고 母親도 걱정하여
兩朝를 섬기며 20년동안 忠
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너
의 誠孝때문이고 나는 이미
늙었고 또 훌륭한 너를 두었
으니 여한이 없으니 너무 썩
心치 말라고 하자 公은 어머
님의 가르침으로 양조를 드나
들며 오랜 세월이 흘러 어머
님을 모시는 일에 소홀하였으
니 한이 된다고 하자 너의 功
勳으로 父母를 모두 영화롭게
하였으니 더 이상 무엇이 한
이 되느냐 하였다.

母親은 오랜 병환으로 氣力
이 약해져 의원에게 물으니
獨蓼湯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귀한 산삼을 어
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며 걱
정하였는데 수일 후 우연히
마당의 매화꽃 화분 뒤에 돌
아와 보니 산삼 한 뿌리가 솟

온 방안에 뻗혔었고 어릴적부터 氣象과 容貌가 청수하고 몸들이 장대하여 大人의 기상이 있었다.

3세때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젖에 중기가 나서 아프다고 하자 젖 먹기를 사양하고 죽을 달라고 하였으며 젖을 안 빨면 더 아프다는 말을 듣고야 젖을 먹었고, 4, 5세때에는 父母가 아프다고 하면 매우 근심하는 표정이 각별했으니 천성이 순수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겠는가.

6세때에 부친이 병중에도 자주 말하기를 선조 太師公께서 孝誠이 지극해 나라에서 旌閭하도록 하였는데 이 아이가 조상을 이어 家門을 빛낼 것이라고 하자 공이 듣고는 울면서 아버지는 병이 무거우신데도 의원을 불러 약은 쓰지 않고 天命만을 기다리시느냐 하였는데 이 말이 진심으로 측은한 모습이었다. 이후 부친의 병이 날로 무거워짐에 공이 부친에게 병환이 오래되

공은 즉시 뒷산 숲 속으로 달려가 울먹이며 흰까치 알을 찾아 헤매었다.

해가 질 무렵 흰 까치 한 마리가 나타나 지저귀면서 따라 오란 듯 날아감으로 급히 따라 갔더니 까지둥지에 흰까치 알 5개가 있어 가지고 집에 오니 모두가 경탄했고 의원 역시 神異함을 탄복하였다. 이것으로 부친은 얼마간의 효험이 있었다.

이 일이 있던 뒤 소문이 사방에 퍼져 공의 孝誠에 감동하였다. 이때 問病은 趙大新이라는 분이 사실을 듣고 詩를 지어 칭찬하였는바,

至誠天必感 卽地所求生
園花多怪異 林鶴驗神明
王筍獨美 陸橘固尋常
六歲能如是 世人孰不驚

(지성은 하늘이 꼭 감응했음인가. 땅에서는 그 구하던 것이 얻어졌다. 괴이하게도 철도 아닌데 밭에 오이가 있었고 숲에선 흰까치 알 얻은 것 신명이 감동했네. 옛날 王祥의 죽순만 대단한 게 아니며

라 하였다. 그러던 중에도 왕래하는 편에 늘 고국에 있는 어머니의 安否를 물었으며 한 번은 침상에 기대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온몸에 땀이 흐르기에 괴이하게 여기고 고모부에 말하고 집에 갔다 올 의사를 말하니 그 孝誠을 아는지라 여장을 챙겨주었다. 공이 바닷가에 이르렀더니 사공이 말하기를 수일간 풍랑이 심하여 운항할 수 없다고 하니 공은 간청하며 망극한 마음으로 경건히 北쪽을 향해 재배하니 그 정성에 감동하여 사공은 응하나 따라온 下人들은 승선하지 않았다. 배에 올라 종류에 이르니 神異하게도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잠잠해져서 일주야만에 목적지에 이르고 또 주야로 길을 재촉하여 집에 이르니 어머니는 병이든지 9일이 되었다고 했으며 이웃모두가 신기하게 여겼다. 공은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여 병이 쾌차한 것을 보고야 고모부에게로 돌아갔다. 이 경위를 고모부에게

君 安東 權漢功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權氏 역시 공을 따라 孝誠이 지극하여 향리에서 모두 감복하였다.

1324년 甲子에 元의 晉宗이 帝位에 오를 때 고모부 末吉과 함께 晉宗을 맞이하였는데 공을 보고 기특하게 여겨 믿고 禁中의 宿衛로 임명하였는데 정성으로 임무를 다하여 信任이 두터웠고 공의 孝行을 듣고는 감동하여 詩를 지어 칭찬한 구절에

能使香名 異國傳

(그 빛나는 명예가 上國까지 전해지는구나) 했다. 오랫동안 벼슬하다가 황제께 고하여 어머니를 찾아뵙게 해 줄 것을 청하니 황제도 그 孝行을 알고 金剛山에 降香하게 하고 金字碑를 주었다.

공이 귀국하자 고려의 忠肅王은 공의 행적을 듣고 郎中에 제수하였다.

정성으로 충성을 다하여 信任을 얻어 王은 公文을 가져오는 신하에게 우리 郎中이 서명을 하였는가를 묻고 공이

아나 있었다. 이를 깨다가 다려드리니 효험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듭 놀라워했다.

忠惠王이 공을 불러 入侍하게 하고 나라에 공훈한 업적을 말하고 품계를 높여 贊成事로 삼았다. 공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王을 모셔 王道公을 手足처럼 믿었다. 不幸히도 王이 승하하자 조정이 혼란하고 民心이 소란해졌을 때 相國 王煦(왕후)가 天子에게 入朝할 때 공을 천거해서 국가의 庶務를 맡도록 하였던바 공은 國事를 家事처럼 보살피 법도가 있고 公平하여 重任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라안이 편안하였다.

忠定王이 卽位하여서는 重責을 맡기려 하였으나 사양하고 물러나 있었던바 얼마 후 또 부름을 받고 版圖判書의 벼슬에 임했다. 그후 恭愍王이 卽位하여 趙日新이 공을 참조하며 저해하려 했으나 王은 오히려 더 공을 믿고 政丞으로 제수하였다. 그후 太師 脫脫의 협박으로 공이 자리에

서 물러나기를 청하니 허락하고 曲城候에 봉하고 休養하며 寢具를 하사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다. 얼마후 王은 다시 공을 불러 都元帥에 任命하여 北方을 鎮定하게 하고 節鉞(절월)을 주면서 王은 이제 北方에는 신경쓰지 않겠다고 하자 사소한 일로 걱정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王은 공은 참으로 나의 萬里長城이다 라고 하였다.

公이 北方을 平定하고 돌아오자 크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쉬게 하였다. 그후 紅巾賊이 침입하여 도성에 접근해오자 침식을 잊고 어가를 호종하여 福州에서 尙州로 옮기고 또 淸州로 옮기는 동안 정성으로 王을 돌보니 난리가 平定되고 환도했을 때 公의 忠誠에 감동하여 벼슬칭호에 “輔國” 두 자를 더해주고 친히 肖像을 그려 하사하였다. 그리고 公의 딸을 愼妃로 맞아들이고 공을 曲城府院君에 부인 權氏를 辰韓國夫人에 봉하고 또 侍中을 제수하였다. 얼마 아니되어 또 母夫人의 병이 위독하여 벼슬에서 물러나와 부인과 함께 끊이지 않고 손수 약을 다려 밤낮으로 근심하며 올리었다. 이때 公의 外叔이 趙元新은 公도 年

을 잃어 禮에 어긋난다고 하자 公은 단호하게 의당 君子들의 公論이 있을 것이니 말하지 말라 하니 모두가 말이 없었다. 장사 후에도 遺訓에 따라 여막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눈, 비와 기후에 상관없이 매일 한 번은 성묘를 하니 아들들이 민망하게 여겨 묘 아래 빈 여막을 지어 성묘길에 더위와 비를 피하게 했다. 공이 여막에 있을 때 鄭夢周와 韓修가 찾아와 모부인이 고령으로 편히 별세하셨고 선생께서도 기력이 크게 쇠하지 않은 것 또한 誠孝때문이고 더욱 가끔 신기한 물건들을 얻어 부모님께 봉양한 것 천하가 다 아는 바이니 효성에 있어 또 무슨 한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 公은 6세때 부친상때는 그 아픔을 알지 못했는데 나이 지금에 이르니 이제 참으로 망극한 아픔을 알겠소 하니 모두는 서로 보고 탄식하였다. 母夫人의 상을 마치고 公이 병환이 있어 부인과 자식들이 정성껏 간호하자 公은 할 일을 다 했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였다.

癸丑年(1373) 다시 門下侍中에 제수되었고 공민왕이 병환으로 10여일 동안 누워있으면서 다른 신하는 물리치고



유적 순방 (전남지역)

-대전 일가분들의 나들이-

2002년 세계 축구선수권대회(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분투하여 세계4강전에 진출하여 나라 전체가 큰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던 6월 23일 파주염씨의 대전 일가분들은 한 발친목회(회장 염영옥) 주최로 전년도에 광주 중친회에서 대전 뿌리공원에 세워진 파주염씨의 조각비를 견학왔던 일의 답방 형식으로 가족 약

30명이 전남에 있는 우리의 유적지를 방문하였다.

우리 일행이 전세버스로 전남 광산 톨게이트를 나왔을 때 환영 프래카드를 광주 중친회(회장 염금섭)와 산하 염우회(회장 염광호) 회원 여러분 약 30여명이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인사를 나눈뒤 버스 2대에 분승한 우리들 일행 60여명은

(◇ 대전 일가분들과
충경서원에서)

충경공을 비롯한 상계 선조분의 사단(祀壇)과 이외 선조분의 분묘가 여러 기 있다.

이 서원 일대의 정화공사는 유럽에서의 후원과 전국 일가분들이 뜻을 모아 1987년 5월에 착공하여 1989년 4월에 준공을 보았으며 매년 음력 3월 5일의 서원 유림제와 음력 10월 5일의 사단향사(祀壇享祀)를 전국의 일가분들이 모

老해서 가벼이 해서는 안될터 인데 어찌 그리 골몰하는가 라며 타이르자 오히려 공은 노하여 부모가 병들어 근심하고 보살피는 것이 나이와 무슨 상관이요. 손수 보살피는 것이 어찌 내 몸을 가벼이 한 다고 이르는가 하니 外叔도 민망해 했다. 더욱 母親의 병이 위독해지자 母夫人은 공의 손을 잡고 내 나이 80이 넘었으니 오래 살았고 兩朝에 섬겨 후한 녹으로 나를 잘 봉양해 주었으니 내 분수에 지나치다. 너의 아들 셋이 모두 현달하니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여모살이를 하지 말라. 너도 고령이니 상할까 염려스럽다 하니 公도 어머님의 명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恭愍王 22년(1373년) 癸丑 12月 26일에 母夫人이 別世하니 너무나도 슬퍼하고 통곡하여 몸이 야위므로 조문객이 모두 애처롭게 여기며 위로 하였다. 公은 부친상이 어려서였기에 소홀했음을 한스럽게 여기고 모친상은 후하게 장사지내려 하자 흑인은 형편

公은 鄭夢周, 尹桓 등 2~3명과 함께 王을 간호하였다. 이 정성을 시기하여 倖臣(행신) 金光慶 등이 참소하였으나 王은 오히려 나무라며 공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며 너희들은 알 바 아니라니 다시 더 말을 못했다. 公은 武侯(제갈공명)의 충성에 감동하고 出師表를 늘 읽고 祭壇을 설치하여 제사 지내며 흠모하였다. 庚申년(1380)에 公은 아들과 함께 先山에 참배하고 또 老宰相들과 함께 恭愍王陵에 참배하고 壬戌년(1382) 3月 18일에 別世하니 享年 79세였다.

아, 위대하다 公의 忠孝여! 죽을 때까지 忠孝를 잊지 않은 사람은 천년이래 公 한 사람뿐이었다. 公의 큰아들 國寶도 忠孝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니 忠孝는 이 집안의 대대로 전하는 心法이다 라고 하며 이 글을 쓴 良景公은 끝으로 余窮觀世人之序人記人者不無潤筆而不佞之於先生敢潤筆平但求前日耳目之所逮與國人之所傳 頌者 謹爲序次如右而 猶

未免疎略以俟於當時立言之僉君子后之覽者幸不識其言之僭猥也否時 上之郡位 15年 秋 8月 戊申 女壻 推誠佐理功臣 奉翊大夫 密直 司事上護軍 鄭熙啓 謹再拜記 (내가 삼가 보건대 세상사람들은 남에게 序나 記를 써 주는데 있어 꾸미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내가 어찌 선생의 사적을 감히 꾸미겠는가. 다만 지난날 내가 보고 들은 것과 온 나라 사람들이 전송하는 것을 모아서 삼가 이상과 같이 서술함으로서 오히려 소략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여러 군자들에게 보충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후세 이를 본 사람들이 혹 내 말이 외람됨을 비난하지나 않을까는 모르겠다.) 금상즉위15년(1366년) 가을 8월 무신일 사위 추성좌리공신 봉익대부 밀직사사 상호군 정회계 재배기 라며 決句하였는데 얼마나 경건히 정성으로 기록하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碧江)

10시반경에 나주 삼영동에 있는 충경서원(忠敬書院)에 도착했다. 마침 서원 건물들은 기와지붕이었던 것을 동판지붕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서원 중앙 뒤편에 있는 중시조님 위전에 술잔을 올리며 경건히 참배했다. 광주총친회 금섭회장님의 환영인사말씀을 듣고 대중회 고문이시며 이곳 KBS 광주방송국 회장이신 홍섭님의 나주 도선산의 내력과 충경서원 건립 경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참여자 일동은 그 동안 애써주신 일가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 컸고 앞으로 잘 가꾸어 힘써 관리, 유지해야겠다는 다짐을 굳게했다. 충경서원에는 앞으로 중앙 건물에는 중시조님 충경공 2세조 국과공, 동정공, 청강공을 비롯한 상계 선조분의 초상과 위패가 모셔져 있고 이 건물 앞 좌우로 동덕사, 서덕사에도 선조분들의 신주를 모셨다. 그 밖에 강당, 서고 등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건물들 담장 뒤편 언덕에는

여 모신다. 다음으로 우리는 회순군 이양면에 있는 유천사(柳川祠)에 도착했다. 이곳은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순국한 퇴은당 염결(廉傑 12세손) 장군과 두 분의 아우(염서, 염경)와 아들(염홍립) 네 분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71년 4월에 개수 건립되었고 네 분의 충신들은 1605년(선조 38년)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추서되었고 매년 음력 3월 19일에 유림향사로 봉헌되고 있다. 우리는 이곳을 참배하면서 이성계에 의해 우리 2세선조 세분 모두가 누명을 쓰고 멸문의 화를 입어 이씨조선에서는 벼슬길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는 위기에는 몸을 던져 충성을 다한 그 의용(義勇)에 고개가 수그러졌었다. 다음에 우리는 보성군 울어면에 있는 상계 6세조 송화공의 배위 숙부인 함양박씨의 산소와 바로 밑에 있는 그 재 (다음면으로)

또 한 方法의 삶

(良景公 鄭熙啓의 行狀)

우리 坡州 廉氏의 中始祖이신 忠敬公님과 配位이신 辰韓 國大夫人 安東權氏와의 사이에는 아들 三兄弟분인 菊坡公, 東亭公, 淸江公과 딸 여섯분이 계셨는데 큰따님은 唐 城君 南陽洪氏 徵에게 시집가고 둘째는 大司憲 長興任氏 獻에게, 셋째는 鷄林君 慶州 鄭氏 熙啓에게 시집갔고, 넷

살인 熊山齋(熊山齋)를 찾았다. 이 묘지의 터가 사자형국으로 호남에서 이름 높은 명당자리라는 설명을 듣고 풍수 지리에는 깊이 모르나 전망 좋고 아늑한 지형으로는 수궁이 갔었고 잘 보전될 것을 기원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15시경에 보성군 문덕면에 있는 청계영당(淸溪影堂)에 참배했다. 동리에서 떨어진 곳에 있던 영당을 동리안으로 옮겨 웅장히 새로 지은 영당은 곱게 단장되어 후손들의 수고와 지극한 정성에 감탄했다. 이곳에는 충경공, 국과공을 비롯한 상계 5위의 신주와 초상이 모셔져 있으며 매년 음력 3월 15일에 문중행사로 주도

째는 恭愍王의 愼妃였으며, 다섯째는 三司右尹 禮安李氏 竦에게, 여섯째는 草溪卞氏 漢城判尹 南龍에게 각각出嫁하였었다.

二世祖 세 분 兄弟가 禍王 14년(1388년) 戊辰 正月에 당시 軍部の 최고 權力者였던 崔瑩장군과 李成桂에 의해 不正한 방법으로 財物을 탐하고 官職을 남용하였다는 명목의 謀計로 禍를 입어 피살되었고 이때 忠敬公의 사위 洪徵, 任獻 李竦과 그 家族들도 함께 피살되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卞南龍도 처단되었고 또 菊坡公의 사위 直提學 順興安氏 祖同과 東亭公의 사위인 平澤林氏 楸, 成均 祭酒 尹璵도 같은 날 함께 피살된다.

이와 같이 피살된 사람의 처와 아들, 딸들은 官奴로 되기도 하고 대부분 피살되었었다. 심지어 강보에 쌓여진 어린이까지도 강물에 던져 죽였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었다. 이때 피살된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르렀다 했으니 罪를 지어 처벌되었다기 보다는 어

건의 시작이었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 반대세력의 中心이던 廉門一族과 관계되는 사람들과 가족들까지 처단하였었다.

고려사에서의 흠은 李氏朝鮮이 建國된 후 고려조의 臣下였던 사람들이 고려에 반역하고 易姓革命을 하게 된 사실을 변명하고 또 合理化시키기 위해 鄭麟趾 등이 고려사를 편찬하고는 이전의 歷史書는 모두 불태워 버리고 나라의 명으로 그 외 사실은 합구시켜 버린 사실이다.

이 작업의 중심은 特히 고려말기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의도적으로 曲筆하기를 고려 末期의 王들의 正統性을 허물고 不能과 悖倫으로만 評하고 또 당시의 權臣들에게는 貪慾과 腐敗相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였다라도 자세히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 모순성과 부당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먼저 우리 家門의 실상을 보자.

우선 忠敬公의 祖父되시는 忠靖公 諱承益님께서는 宰相의 位에 있으면서도 趙仁規(忠敬公의 岳父...장인)가 하루는 말하기를 시중에서의 소

를 뺏기 위해 田制改革을 구실로 했다고 이조때의 史觀을 바로 잡고 있다.

李朝에서나 심지어 요즘에 와서는 歷史의 勝利者들은 자신들의 行動이 당시에는 不倫으로 규탄되었지만 요즘의 觀點으로선 肯定도 된다고 변명하고 있다.

고려조에서 높은 벼슬을 한 많은 臣下들이 고려를 배신하고 이조 건국에 공신이 된 사람들의 評價는 아직도 未定見의 상태로 보는 史家들이 있다.

戊辰 正月에 破門이 禍를 입었을 때 連坐되어 처단된 忠敬公의 사위 中 유일하게 살아 남은 사람으로 鄭熙啓가 있다. 良景公 慶州鄭氏 熙啓는 忠穆王 4년(1348년) 戊子 3月 18일에 開京에서 父 都僉議 政丞 月城君 文忠公 暉와 母 忠肅公 光山金氏 深의 따님과 사이에서 出生하였다. 始祖는 신라조에 六村長의 한 분인 鰲山珍支村의 智伯虎로 熙啓는 始祖의 49世孫이다.

公은 恭愍王 18년(1369년) 己酉에 文科에 及第하여 王의 총애를 받아 大護軍에 오르고 禍王때는 崔瑩의 막하에서 密直司에 오르고 褻克 廉, 趙浚, 鄭道傳, 南閣등과

바꾸는바 그 예는 고려와 조선이 멀지 않는 예이다. 고려말에 정사가 문란하고 교육이 거칠어 세상이 누란의 위기에 다달아 하늘이 임금을 바꾸는 시기가 되었다. 태조대왕이 일어나 임금자리에 올라 세상이 안정되니 이는 어진 신하와 인재들이 王에게는 새에게 날개를 고기에게 비늘이 되듯 받는 것이다.)

그 후 1395년(太祖4年 乙亥) 9월에 開京에서 漢陽으로 이어하고 判漢城府事로 任命되어 漢陽築城을 하였는데 익년인 1396년 7월 12일 享年 49세로 府事재직시 세상을 떠났다. 諡號를 良景이라 했는데 墓所는 陽川, 竹洞(현 서울시 신정동)에 있으며 後에 大匡輔國崇祿大夫 右議政 鷄林府院君에 追贈되었다.

이상과 같이 良景公 鄭熙啓님의 行狀의 대략을 살펴보고 妻家 모두와 동서 등이 戊辰 正月에 慘殺당하였는데 생각과 길을 달리하여 李朝에 功臣이 되는 생애를 이루는데 戊辰年에서 8年을 더 살았고 後孫들이 李朝에 벼슬하는 터전을 마련했다. 公의 생애에서 特記할 것은 恭愍王 15年 8월에 奉翊大夫로 密直司事 上護軍으로 있을 때 丈人되시

되는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이곳 문덕마을을 중심으로 이웃동네 거의 모든 주민이 파주염씨들로서 전국에서 가장 큰 집성촌(集姓村)이란다. 집집마다의 문패를 보고 더욱 친근감을 느꼈으며 동리 바로 옆 낮은 산에는 북과형궁의 명당에 7세조(愼자 孫자)의 산소가 있고 그 사당인 영사재(永思齋)가 영당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의 전남지역 유적지 탐방길에서 타지역에 비해 우리 조상님들의 산소와 유적지가 보다 훌륭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

또한 이번 탐방에서 이 지역분들의 친절하고 안전한 안내와 극진한 대접에 너무나 감사했으며 이번 일과 같이 우리 일가분들의 각 지역 영당과 재실제사에는 물론 자주 상호방문해서 친교를 다지고 화목하고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써 보다 일가분들의 모여진 힘이 요구되는 사회생활에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文圭 대중회 이사)

면 戰爭을 연상시키기도 하여 理性을 잃은 미친자의 광기로 밖에 설명이 되질 않는다. 이와 같은 학살의 이유를 고려사에서는 처형당한 이들이 不正한 方法으로 財物을 모으고 官職을 남용하였다는 罪目이었는데 罪相과 處罰과는 너무나 衡平을 잃고 있다.

이 많은 사람을 처단한 동기를 보면 東亭公의 家奴 李光이 趙胖의 田地를 빼앗는데 조반이 그 억울함을 東亭公에게 告했던바 東亭公께서는 李光에게 命하여 돌려주었던바 李光이 또 趙胖의 땅을 빼앗자 조반은 軍兵을 동원하여 李光을 죽이고 그 집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사실을 변명하려고 開京으로 올라오는 것을 東亭公은 아무 보고나 連絡도 없이 家奴를 죽이고 그 집을 불사른 사연을 조사코자 趙胖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였더니 전 밀직부사로 있던 趙胖은 다급해서 李成桂에게 알리고 구원을 청하게 되자 같은 세력인 이성계는 崔瑩을 설득하고 또 禍王께 진언하여 도리어 東亭公을 가두게 되는 사

문이 "세 사람의 宰相中 洪子藩은 진짜이고 나는 늙은 통역관이며 당신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라는 말만 듣고도 그 날로 官職을 사직하고 삭발하고 중이 될 정도로 신변이 결백했고 忠敬公께서도 後世까지 칭송하는 清廉潔白한 一生이었고 戊辰正月 처단의 표적이던 東亭公의 思想을 엿볼 수 있는 行狀과 지으신 詩句를 보면 貪慾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고 또 이때 함께 禍를 입고 忠敬公의 사위 任獻의 집을 수색했을 때 집에는 한 섬의 곡식도 없어 면죄해 줄 것을 청해도 崔瑩은 이를 무시하고 죽이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고려사 列傳 林堅味란에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歷史아닌 사실을 近世 史學家들도 着眼하여 당시 李成桂의 新軍部 勢力이 일찍부터 革命을 목표로 하여 反對勢力을 제거하기 위한 첫 단계이고 5個月후 威化島回軍 후 바로 禍王과 崔瑩을 처단하는 순서였다고 하며 新勢力들이 舊세력이 占有했던 土地

함께 李成桂를 도와 朝鮮創業에 공헌하여 純忠奮義佐命開國一等功臣 鷄林君에 책록되고 田地 170結 등을 하사 받는다. 鄭熙啓가 朝鮮開國에 參與한 辯은 後孫 東暉가 撰한 墓碣銘에 의하면

隨任出能 謀固邦本 一夫失德 商祚已襄 遂參 孟津之會 實天地之變化也

(있는 곳마다 힘을 다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려했으나 임금이 실덕하여 국운이 기울어짐에 마침내 혁명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이는 곳 천지가 변화되는 시기였다.) 하였고 또 神道碑銘 첫머리에 天地樹君 置臣 必命以保 世長民之任 而任之不舉 且必更其樹, 易其置 觀於麗鮮之際 卽其 不遠之殷鑑也 麗之季政 紊教荒 世追累卵 更樹易置 適當其會於是爭乎 太祖大王 龍興建極 普天有定 時則良弼 庇臣翼附鱗攀

(하늘이 세상에 임금과 신하를 둘 적에는 세상을 보호하고 백성을 잘 살도록 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 책임을 이행치 못할 때는 임금과 신하를

는 忠敬公의 忠孝錄을 지어 남긴 일이라 하겠다. (丙寅譜(1986年 發行) 文獻錄 1021쪽 참조)

良景公의 配位되시는 瑞原廉氏는 廉門의 中始祖되시는 忠敬公의 딸 6명중 셋째로 恭愍王妃의 형님이시다.

慶州鄭氏의 後孫 樂浪侯의 67代孫인 東暉가 制撰한 瑞原廉氏의 墓碣銘에 의하면 良景公의 配位이신 瑞原廉氏는 曲城府院君, 忠敬公의 셋째 따님으로서 고려 忠定王 2年(1350년) 庚寅 4月 8日에 出生(父 忠敬公이 47세때임) 하였고 시어머니 貞敬夫人 光山金氏의 큰며느리가 되는데 남편 良景公의 벼슬에 따라 曲城郡夫人에 봉해졌다. 德이 높고 어질었으나 수가 짧아 1男 1女를 낳고 禍王 2年(1376년) 丙辰 4月 25日에 세상을 떠나니 享年 27세였으나 남편 산소 아래 墓가 있다. (枕巽原)

아들 吉祥은 吏曹參判으로 후에 判書로 贈職되었고 따님 (다음면으로)

上系 선조분의 관계 재고

歷史를 기록함에 있어 上古에 이룰수록 不確實한 部分들이 個人들의 主觀만으로 推定해 버린 結果, 후대사람들은 그 不確實한 기록을 사실인양 傳해지는 현실을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한 家門의 系代를 보더라도 時代를 올라갈수록 不確實한 部分들을 發見할 수 있다. 한 世代에 이르러 族譜를 修撰함에 있어 성급히 系代를 연계시키려는 意慾이 앞서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上系를 연계해 버려 의문된 부분이 있어도 紕明하려 들지 않고 의식을 固定해 버리려는 性向이 있음을 많이 본다. 때문에 우리는 보다 確實한 家系를 알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실은 이를 保全하고 근거가 없거나 의문이 되는 부분은 推定하지 말고 미 확인의 사실을 솔직히 남겨두는 것이 후학을 위한

子 軍에 편입되어 軍役中 마침 契丹軍이 침입하여 서울이 소란하게 되자 父母를 모시고 고향인 峯城縣(지금의 坡州)으로 가던 도중 그들에게 납치되어 갔다가 淸寧元年(거란 도종년호 - 서기 1055년) 정월에 아들 하나만을 데리고 도망하여 왔으니 그의 先代로 부터의 永業田과 가택을 돌려주도록 하기 바란다고 상주하였다. 이때 王은 可稱은 功臣의 후손으로 청장년시기에 적에게 잡혀갔다가 藩土에 있던 妻子를 버린채 다만 아들 한 명만을 데리고 백발이 되어 돌아왔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가없고 민망하니 그의 세업으로 내려오던 토지와 주택을 주라고 하였다. 이것이 歷史書에 의해 坡州 廉氏의 始祖로 邢明님을 모시는 근거이다. 또 하나의 근거로는 많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疑問이 생긴다. 다시 고려사에서 太祖時代의 두 기록을 살펴보자. 太祖 戊寅元年(918년) 8月 辛亥日에 開國功臣의 行賞을 함에 있어 1등으로 4명, 2등으로 廉湘등 7명을 3등으로 2,000여인에게 포상을 했고, 王建이 후년 병이 들어 癸卯 26년(943) 5월에 宰臣 廉相, 王規, 朴守文에게 유언을 하기를 나라 안팎의 중요사무들은 太子 武(2代 惠宗)와 함께 처리하라며 같은 달 丙午日에 죽었다. 이상이 王建때에 廉氏姓에 관한 기록의 大略이다. 고려사 등을 근거로 시조님의 벼슬인 “三韓功臣 司徒”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사 권76, 지제30에 기록되기를 “太師, 太傅, 太保”를 三師라 하고 太尉, 司徒, 司空을三公이라 하며 이에 해당할만한 인물이 없으면 빈자리로 두었

후에 宰臣이면 나라에서 廉門의 始祖로 峯城 땅에 永業地를 준게 확실하지 않을까. 이상에 추리라면 한 가지 장애가 남는다. 邢明님과 “位” 사이는 父子관계가 아니라 또 한 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데는 이유가 있다. 즉, 고려사에서 可稱은 邢明의 子孫이라는 해석을 손자라고 해석한데서 비롯되었다. 고려사 이 구절 다음에 보면 可稱은 功臣의 苗裔(먼 후손)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고려사 번역학자들은 이 부분을 후손으로 해석하고 있다. 卽, 年代의 추 정상 邢明 → 位의 사이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또 한 분의 代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점 유념해서 깊이 재고해야 될 숙제로 남는다. 다음 丙寅大同譜에 可稱 → 子顯 → 子漢의 系代이다.

—不除妄想不求眞— (永嘉玄覺)

도사님께 한 선비가 찾아와 저의 煩惱를 없게 해 주세요 라며 간청했다. 達磨는 말했단다. 너의 “번뇌”를 가져오라고 찾아도 가져올 수 없는 번뇌 이기에 못 찾겠다 했더니 벌써 너의 번뇌는 없어 졌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2祖 慧可는 길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도사는 선비에게 너의 번뇌를 없게 해 주는 대신 너는 앞으로 즐겁고 웃는 일이 생겨도 웃거나 즐거운 마음을 갖지 말 것을 약속하라 했다. 선비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도사님 저의 번뇌를 그냥 두세요. 지금은 참고 견디어서 훗날 즐거울 때 실컷 즐겨워하고 웃는 것이 더 좋은 人生인 것 같아요 했다. 도사도 선비도 미소지으며 고개를 넘었다.

(母影居士)

지식인의 태도가 아닌가싶다.

1986년(丙寅) 8월 25일에 發行된 坡州廉氏의 大同譜를 보면 中始祖님 이상의 上系에서 始祖 邢明 → 子, 位 → 子可稱 → 子 顯 → 子 漢으로 연계되어있다.

筆者가 이는 범위내에서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사실에는 그 근거를 밝히고 근거가 없고 불확실한 부분에는 그 의문점을 제시하여 후일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새로운 근거가 發見되어 우리 家門의 역사가 바르게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기술해 본다.

우선 邢明님을 始祖로 모신 내용을 찾아보면, 고려사(1451년 景泰2년 集賢殿 大提學 鄭麟趾 등이 지은 책 139권) 권 7, 세가제 7 文宗 1에 기록되기를 丙申 10년(文宗 10년 - 1056년) 2월 甲午日에 有司가 王께 아뢰기를 蕃人들에게 납치되어 왔던 廉可稱은 軍器 丞인 廉位의 아들이요 三韓功臣 廉邢明의 孫으로 庚戌年中(顯宗元年 1010年)에 環衛公

(앞면에 이어)

은 中樞院府事 羽溪 李蔓에게 시집갔다.

이상의 瑞原廉氏 墓碣銘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우리 丙寅년(1986) 大同譜에 누락된 부분을 찾아 後日 族譜 편찬 때 參考로 해야 될 것이다.

(宗桓)

氏族들의 現代에 와서도 신빙하고 있는 “氏族源流”(豐壤 趙從耘 편찬 선조 40년 丁未 1607~숙종 9년 癸亥 1683)에서도 瑞原廉氏의 家系로 邢明 → 子, 位 → 可稱의 순으로 연계되어있다.

여기서 邢明 始祖님에 관해 다른 면을 생각해보자.

始祖님은 어느 時代의 분이였을까?

고려사에서 年代가 표시된 可稱님의 기록을 근거로 계산해 본다. 可稱님의 軍役に 편입된 해가 1010년으로 청장년이라 했으니 당시의 연령은 약 20세 전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납되었다가 白髮이 되어 돌아왔을 때가 1055년이니 20세에서 45년후이니 이때는 약 65세로 계산된다. 여기까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을 추리이다. 이를 역산해본다면 1010년에 可稱님이 약20세였다면 生年은 990년이 되고, 이때에 父親되시는 “位”님의 연세는 얼마나 되었을까? 가령 이때 “位”님의 연세가 약 25세였다면 “位”님의 生年은 965년이 된다. 965년에 “位”님의 父親되시는 분 ... 邢明 ...의 연세를 약25세로 보았을 때 그 분의 生年은 940년 전후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고려 太祖 王建(867~943)의 年代와 비교해 보면 시조님은 王建이 죽기 전후로 보는 것이 年代로 계산한 상식이다.

고 언제부터 三師, 三公을 두었는지 알 수 없고 三師, 三公은 각 1명씩이며, 正一品으로 한다로 하였다.

기록의 뜻만으로 본다면 三師, 三公은 政務를 專擔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名譽의 最高職으로 國事에 자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고려사 권75, 지제29에 三韓功臣이란 말이 있는데 開國前後의 功臣에 대한 일반적 호칭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해 본다.

王建이 죽고 文宗2년까지의(943~1055) 112년간, 혹은 시간의 범위를 좁혀 太祖 죽기 전후의 기간중 나라의 상징적인 三韓功臣, 司徒였던 邢明님의 기록은 겨우 1055에 廉氏의 始祖格으로만 언급되었는가. 이 기간중 三韓功臣의 반열의 廉門의 人物은 “湘” “相” 두 분의 기록이 핵심인데 이 두 분 아니고 또 한 분의 邢明이란 분이 있어 始祖로까지 언급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한 가지 推定을 해 본다.

開國二等功臣 “湘” 유언을 받은 “相” 그리고 始祖 邢明은 “同一人物” 일 것이다.

918년의 二等功臣이었던 “湘”님의 당시 연령을 2~30代로 보면 943년에 宰臣인 “相”님은 60 전후의 연세가 되지 않았을까? 開國功臣이고

먼저 고려사의 기록을 살핀다.

권제 74, 지제 28에 보면 국자감 시험으로 德宗初年(1032년)에 右拾遺 廉顯에게 命하여 鄭功志 등 60人을 뽑았다.

권제 5, 세가제 5 덕중에 보면 廉顯을 右輔闕로 승진시켰고(1033) 1046년 靖宗이 죽자 王命에 의해 죽은 王의 諡, 廟號 등을 宰臣 廉顯이 冊文으로 지어 바쳤다.(東文選)

고려사 권 9, 세가 9 文宗 3에는 경신 34년(文宗때 1080년) 12월초에 東蕃에서 兵亂이 일자 兵部尙書 廉漢을 兵馬使로 하여 보병과 기마 3만을 출동시켜 431명의 살상과 포로들을 체포했으며 신유 35(1081) 봄 정월 을미일에 廉漢을 兵部尙書로 任命(文宗 3년), 또 이 해 11월 丁未日에는 兵部尙書 廉漢이 글을 올려 年老한 관계로 퇴직을 청했으나 王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

이상의 기록으로 확인할 때 可稱님의 蕃地에 피납되었던 기간이 1010~1055간으로 도망을 때 겨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다고 하였는데 그 아들님(顯)이 1032년에 右拾遺로 國子監試를 치르고 1033년에는 右輔闕로 승진 1046년에는 宰臣으로 冊文을 올렸는데 이 기간은 可稱의 피납기간이니 사실이 성립될 수 없고 또

常識에 의한 계산을 해본다면 白髮이 된 可稱님이 1055년에 돌아오셨으니 生年을 990년으로 할 때 “顯”님이 宰臣으로 冊文을 쓰셨을 때를 약 65세로 본다면 生年은 981년으로 계산되니 오히려 可稱님 보다 더 年老한 분으로 계산이 되고 또 可稱의 아들님이 “顯”님이라는 역사의 기록이 없다.

다음 “顯”의 아들님으로 “漢”字 조상님을 연계한 것에 대해 검토해 보면 “漢”님께서 年老하셔서 퇴직을 원했던 해가 1081년인데 이때의 연세를 약 65세로 볼 때 生年은 1016년이고 “顯”字 선조님이 宰臣으로 冊文을 쓰실 때(1046년)를 약 65세로 보았을 때 生年은 981년으로 “漢”字 조상님과 연세차이는 약 35세이니 조금은 무리가 되나 연세상으로는 父子관계로도 긍정이 되나, 역시 친부자간이란 기록은 없다. 이러한 계산에서 舊譜에는 “漢”字 조상님을 “顯”字 조상님의 윗분으로 모셨다가 “漢”字 조상님을 밑으로 모신 점만은 수긍이 된다.

처음에서도 言及하였지만 믿을만한 기록을 소개하고 의심되는 부분을 제시하며 하나의 推想을 해 본 것이니 宗人들의 진지한 再考와 근거수집에 힘써 주셨으면 더할 바램이 없겠다.

(碧江)



(◇ 시장에 당선되고 부인 이종숙씨와)

- 弘喆氏 大田市長 당선 -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大田市長으로 출마해 당선(191,832표)된 弘喆氏(23世 甲申生)는 忠南

論山이 고향이며 大田工高와 경희대학교 연세대학원을 졸업하여 政治學博士의學位를 받고 경희대, 경남대학의 교수직을 거치면서 대통령정부 비서관, 대전시장, 한국공항공단 이사장과 대전에 있는

국립한밭대학교 총장직을 역임하였다. 대전공고 시절에는 매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케 했다.(宗報 14호 6면 참조) 弘喆氏는 한편 한국 오페라단 이사장을 맡는 등 음악애호가이기도 하며 그의 저서 10여권 중 '제3세계와 종속이론'은 80년대 저명 도서이기도 했다.

이번이 두 번째 大田市長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련의 오랜 터전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한나라당원으로 분투해 당선된 것은 국민여론에 의한 정당에 대한 신임도가 컸겠지만 그의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에 의한 결실로 믿어지며 전임때 대전엑스포 행사를 성공리에 치루었던 것 이상으로 市政을 훌륭히 수행할 것을 기대하며 또한 廉門으로서도 그의 발전에 바라는 기대가 크며 자랑이 되길 기원한다.

(宗桓)

부모를 잘 섬겨라

- 평생을 다해야 될 효도 -

어느 날 문득 한 고등학교 학생에게 물어 보았다. 효도(孝道)가 무엇이나고.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부모에게 잘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효도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다.

섬긴다 함은 모시어 받든다는 말이다. 그 학생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이겠는가 하고 다시 물었더니 그리 시원한 대답을 못했다. 그 학생 뿐만 아니라 요즘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효도가 무엇이라고 대충은 짐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잘 모른다면 효도라는 뜻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느껴졌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잘하며 나이 들어서 부모에게 때에 맞추어

받으며 늙는다. 인생의 전과정을 부모로부터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헌신적인 보살핌에 대해 우리는 이를 호천망극(昊天罔極)이라는 표현을 쓴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넓어 그 끝을 모를 정도라는 뜻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병이 들면 가장 걱정하는 분도 부모이고, 필요할 때는 자신의 피와 장기까지도 서슴없이 내어주려는 가장 희생적인 분이 부모이다. 때문에 자식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일 먼저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대상 또한 부모인 것이다. 비록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그리움의 정이 간절히 남는 것은 부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절에는 전 인구의 반 이상이 이동하

전자족보 사업추진

-이제는 우리도 전자족보시대-

어제가 다르게 주변 생활여건이 날로 복잡해지고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의 모든 정보는 날으는 화살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컴퓨터에 의한 인터넷 문화의 급성장은 참으로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렇듯 사회생활 여건이 복잡해 졌음에도 이에 상응해서 우리도 이젠 앞서서 쉽게 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에 의한 인터넷입니다. 요즘 각 가정에서는 물론이지만 초등학교 학생들도 거의 필수적으로 컴퓨터를 생활용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문중에서는 보통 30년을 1주기로 하여 대동보(大同譜)를 편찬, 발행하고 왔습니다. 때문에 족보 만들 때 한 번만 빠져도 30년을 기다려야 다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한 번만 빠져도 후손들은 그들의 계보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고 태어나도 30년을 기다려야 족보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는 30세의 장년이 되어도 등재된 족보도 없고 그 아들들도 등재된 족보

가 없게 됩니다. 1986년 8월 파주염씨의 대동보(가장 최근 것) 발행때 총 8권의 족보 한 질가 가격이 당시 8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구하려면 20만원을 주어도 구할 수 없는 실정으로 무엇인가 족보내용을 알려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해야 볼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 컴퓨터에 의해 인터넷에 수록되게 되면 또 이것이 잘 운영된다면 누구라도 출생하는 날에 또는 시집오게 되는 날에 호적과 더불어 같은 시간에 족보에 등재되는 편리함도 있고 개인들의 학위나 주요 경력이 족보이름 옆에 등재되고 사진도 실릴 수 있으니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또 전체 일가의 이름이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측하건데 앞으로는 지난날과 같이 책자로 된 족보는 만들어 지지도, 필요도 없는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장래에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일찍이 알고 다른 문중에서는 이미 만들어졌거나 지금 만들고 있는 문중이 많은데 우리 파주염씨 문중에서는 아직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록된 자료를 CD로 만든다 해도 그 부피도 가볍고 가격도 극히 저렴(1매 1~2만원 수준)합니다. 휴대에도 간편하고 찾기도 쉬우며 일가의 전체의 필요한 통계숫자도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자료를 얻는데는 수고와 자금도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1986년 병인보(최근의 대동보)에 수록, 등재된 이후의 변동사항(사망, 출생, 누락자등)을 일가분들에게서 신고를 받아 이를 종합해야 되고 또 종합된 자료를 입력시켜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책자 종보를 제작할 때와 같이 작업에 필요한 공간(사무실)과 운영자금(수단인원, 자료종합검토인원, 입력인원의 인건비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인터넷을 모르는 분) 수고와 돈이 무척 들거라고 걱정하실지 모르나 추측컨대 책자로 된 족보를 제작하는 비용의 1/3~1/5 수준이나 저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꼭 기억해 두실 것은 우리 족보를 가지고 있는 타성의 업자가 이 사업을 가로막아 추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만 조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구히 판매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드리면 효의 전부라고 믿고 마는 것이 요즘의 통념이다.

새삼스러이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생활을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방법에 대하여 온갖 보살핌을 받는다. 나이 들어서도 생활의 기본에 대한 지도를

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재사항의 변경, 추가할 때 마다 돈을 건어 계속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중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감독 통제아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족보의 인터넷화 사업에 관해 인터넷을 모르는 분(특히 연로하신)들은 인터넷의 편리함과 필요성을 잘 모르고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보나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문의해 보시면 저의 이 확신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대중회에서도 하루속히 이 제안을 긍정하시고 총회에서 토의하고 또 전문가(일가분들중)에게도 자문하는 등 합의 결심하시어 이 사업이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봅시다.

※ 합의후에 추진될 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추후 발표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대중회 감사 염명선)

는 목적이 거의는 고향의 부모를 뵈는 일이고 또 조상님의 산소에 성묘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가르침은 나라와 고금을 막론하고 또 모든 종교에서도 공통 계명이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십계명)에서 네 번째에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했고 불교에서 다생부모 십종대은(多生父母 十種大恩)이란 경문에 보면 어머니 뱃속에 품고 지켜준 은혜, 낳을 때에 고생하신 은혜, 낳고서야 근심을 잊는 일, 쓴 것 단 것 가려서 먹여준 은혜, 젖은 자리 마른 자리 가려 준 은혜, 젖 먹여 길러준 은혜, 더러운 옷 빨아준 은혜, 멀리가면 걱정 해주고, 자식 위해선 악업도 대신하는 은혜, 늑기까지 가없게 아껴주는 은혜, 등 열가지 큰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유교에서는 공자님의 가르침으로 "효경(孝經)"이 있는데 그 첫머리 개종명의장(開宗明誼章)에 이르기를 "효는 모든 덕행의 근원이니 우리 신체의 전 부분은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음이 효도의 첫 걸음이고, 출세를 해서 도를 행하며(지위를 확고히 하고 선생을 많이 한다) 이름을 드높게 하여 그 이름이 후세에 까지 기억되게 하여 낳아준(다음면으로)

제사는 어떻게 지낼까

- 요즘 가정에서 제사지내는 풍경 -

우리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식이 통일되지 않아 늘 치르면서도 때가 되면 당황하게 되는바 그 중에서도 제사는 늘 조심스러워 한다.

제사에 관한 문헌은 많으나 그 기간(基幹)은 주희(朱熹 1130~1200)에 의한 주문공 가례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재(李穡)와 그 후손이 1725년경에 완성한 사례편람(四禮便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후 사색당파들의 이견으로 문중마다 형식이 같지 않아 율곡선생(1536-1584)은 "지금 풍속이 너무나 예의를 모르게 되어 제사지내는 법도가 집집마다 다르니 한심한 일이다"(栗谷曰 今俗 多不識禮 其祭之義 家家不同 甚可笑也)라고 했다.

제사라는 말도 중국에선 하늘에 지내는 것은 사(祀) 땅에 지내는 것은 제(祭) 사람과 귀신에게 지내는 것은 향(享)이라고 했다고 전한다. (太宗伯云 天神云祀 地祇曰祭 人鬼曰享)

돌아가신 조상께 드리는 제사도 그 대강을 추려보면 초

時享) 등이 있는데 요즘은 설, 추석과 기제사 세일제만 지내는 가정이 많고 한식에 산소를 찾는 것은 성묘차원이다.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 대상은 고조부모까지의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요즘은 고조, 증조의 기제사는 명절에만 지내는 가정이 많다. 또 명절에는 후손이 없는 삼촌내외분, 형제자매의 제사와 어느 가정에서는 아들, 조카의 제사도 지낸다.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 하고 하루 전날을 입재(入齋) 하루 후를 파제(罷齋)라 했는데 이 기간에는 몸을 깨끗이 하고 집안을 정돈하며 가무를 금하며 문상도 옛날에는 못갔다.

제사시간을 옛날에는 걸명(厥明)이니 질명(質明)이니 해서 요즘의 자정부터 오전5시까지라 했는데 자시(子時)라 해서 23시부터 익일 1시 혹은 닭 울기전이란 속설이 있으나 요즘의 생활 여건으로 보아 일가들이 너무 늦게 지내면 내일 일에 지장이 있어 돌아가신 당일 오후 8시~9시 사이로 지내라고 가정의례

모를 함께 모시는 것을 합설(合說) 혹은 배향(配享)이라고 하고 당인 한 분만 모시는 것을 단설이라 했는데 대개 합설을 함이 보통이다.

진설에는 조율시이(棗栗柿梨 - 대추, 밤, 감, 배) 홍동백서(紅東白西 -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 어동육서(魚東肉西 - 물고기는 동쪽 육고기는 서쪽) 좌포우혜(左脯右醢 - 왼쪽에 마른고기, 삶은 고기는 오른쪽) 좌면우병(左麵右餅 - 왼쪽에 면종류, 우측에 떡) 등 놓는 순서와 위치를 말하고 있는데 서로 방법이 다르기도 하니 가정마다의 전통이 있다.

진설에는 제상의 남쪽 5열에는 왼쪽 - 서쪽이 과일, 동쪽이 조과류이며 4열이 삶은 나물종류, 3열이 탕(어탕, 육탕, 치탕 ... 꿩대신 닭고기로 한다)이고 2열이 적, 1열이 밥과 국(반, 갹)으로 신위와 가까운 쪽이다. 또 합설일 경우 부(父)는 서쪽에 모(母)는 동쪽이고 지방도 이렇게 쓴다.

제사때 지방(紙榜)을 써서 북쪽에 붙이는데 그 서식은 백예축집(百禮祝輯-1929. 4)에 의한 서식이 시중에 있으나 앞으로 유의해야 될 것은 고조부, 증조부 때는 관직이

지방의 크기는 세로 약 22cm 가로 6cm 이다.

제사에 참여하는 범위는 고인의 자손과 가까운 친척 혹은 친구도 참석했다. 이전에는 직계손이라 해도 여자는 참여 안했는데 요즘은 남녀 다 참여한다.

제사 지내는 절차를 약속하면

1. 강신 : 영혼의 강림을 기원하며 향을 피우고 제주만 재배
2. 참신 : 첫 영혼께 인사, 전 참여인이 함께 재배(묘제 때는 강신보다 먼저)
3. 초헌 : 밥뚜껑을 열고 술을 따르며 축문을 읽고 제주만 재배
4. 아헌 : 다음 서열자 헌작, 요즘은 주부도 재배
5. 종헌 : 다음 서열자 헌작 재배, 종헌후 퇴주는 안함. (명절에는 아헌, 종헌은 안함)
6. 유식(脩食) : 제수를 권하는 예, 종헌자에 더 붓고 제주와 아헌관만 재배
7. 합문 : 문을 닫고 조용히 흠향을 기다림. 그 자리에서 묵념으로 대신하기도 함.
8. 계문 : 문열고 들어가 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리며 매에 꽂았던 손가락을 내려

숭늉에 담근다. * 매를 세 번 띄어 숭늉에 맡게 하는 것은 예가 아니라 함.

9. 사신 : 시저를 제사에서 내리고 모두 재배후 축문, 지방을 태운다.

이상의 제사 절차는 전래의 유교식이지만 불교에서는 제사전 독경을 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고 기독교에서는 기톨릭과 개신교가 다르다. 기톨릭에서는 제수를 준비하고 진설하고 식구마다 절을 하며 가장의 말로 축문을 대신하는 등 형식이 유사하나 제사에 십자가상을 걸고 기도와 성가를 부른다.

개신교에서는 고인을 위한 제수의 준비는 없고 절도 안한다.

이상 고인을 위한 가정에서의 제사절차와 형식을 주로 유교식에서 설명하였는바 보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시중에 흔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그 중에서 절차상 요즘 변모된 점들을 언급해 보았다. 불교와 기독교에서의 절차 등도 절이나 교회에서 구할 수 있기에 약속했으며 다만 다른 형식만을 들어 언급했다.

戊辰之禍의 재인식

(順臣과 逆臣의 視點)

다른 門中에서도 거의다 그 소행들을 미화하며 도덕성을 러하듯이 坡州廉氏 門中에서 강조하고 불가피성을 변명하 도 中始祖로 모시는 先祖분은 며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많 高麗에서 淵源되고 있다. 또 기 때문이다.

우리 門中에서 上系始祖이신 고려를 지키려던 忠臣들을 “邢明”님도 필자는 고려 開國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매도하 功臣으로 믿고 있다. 때문에 고 심지어 고려 王家의 혈통 을 우리가 始祖, 中始祖님의 행 통을 부정하는가 하면 통치능력 을 찾고 탐구하려면 불가피 의 不足과 사회생활의 부패상 을 일차적으로 “고려사”와 “고려 을 조작하는 기록들이 많다. 이 점은 지금의 많은 역사학 사절요”를 보아야 한다. 그러 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바이 다. 그럼에도 간혹 사람들은 구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아지 나 아시다시피 이 두 역사서 도 그대로 믿고 그 편견을 고 는 고려왕조를 전복시킨 혁명 구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아지 세력(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수하는 경우가 허다함은 통탄 신 군부세력)에 의해 편찬된 할 일이다.

이성계가 혁명을 이룩하여 조선을 건국하고 鄭道傳에 명 하여 고려사를 찬정케 하였는 데 완성치 못한 것을 세종의 명으로 鄭麟趾등이 前朝 고려 의 역사를 편찬한 것이 지금 정을 合理化시키려고 다방면 으로 면밀히 그리고 교묘하게 전해진 高麗史(129권 100책) (다음면으로)

준칙에서 권장하고 있다.

제사 상에 드리는 음식을 제수(祭羞)라고 하는데 제사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성의 표시이니 물질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많이 들여 (무리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고인이 즐기셨던 음식, 가정에서 평소 드는 음식을 정성껏 차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인도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이다. 가정의 전통이라 하여 구하기 힘든 것을 애써 준비하거나, 이것은 꼭 써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본다. 어느 가정에서는 고인이 즐겼던 하여 담배를 피워 놓거나 개고기를 준비하는 예도 있는데 예에 벗어 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대학자 송시열선생(1607~1689)도 말하기를 “평소 즐기시는 것을 전폐하는 것은 불가하며 개고기 산채라도 쓰면 된다”고 했다.

제수의 진설 방법에는 우선 부모의 각기 다른 기일에 부

있으면 그 관직에 따라 통정대부(通政大夫) 숙부인(淑夫人)이라 단서가 붙었는데 요즘에는 관직이나 사회적 직급을 쓰지 않고 거의 현고학생 부군신위와 현비유인 ○○김씨 신위의 식으로 쓴다. 직분에 따르는 여자의 호칭이 없고 관직만 쓰는 것도 어색하고 또 일률적으로 학생부군으로 하는 것도 요즘 정서에 맞지 않으니

‘현고 파주 염공 길동 신위’
‘현비 김해 김춘자 신위’
로 지방을 쓰는 예가 많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考)비(妣)라 한다)

또 기제사때는 축문을 쓰는데(명절에는 안씀) 에부터의 서식에서의 의미는 “돌아가신 날을 맞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여 제수를 올리오니 흠향 하십시오.” 하며 참예자 대부분이 잘 알아듣지 못한 한문만의 축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한문에서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가미도 해서 고인에게 드리는 말씀이면 족하다고 본다.

하루 보름에 지내는 삭망제(朔望祭), 사당에서 일이 있을 때 지내는 고유제(告由祭), 설과 추석에 지내는 절사(節祀), 사제의 가운데 달에 지내는 시제(時祭)가 있고 묘제(墓祭) 한식날과 10월에 지내는 세일제(歲一祭) 혹은 (앞면에 이어)

부모의 이름까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나 효는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 시작이고 다음이 나라에 충성을 하는 일이고 끝으론 자신의 이름을 빛나게 남기는 일이니 이로써 너희는 조상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라.” 하며 효도의 실행 지침을 지시하고 있다.

음미해 보건데 효도는 흔히 생각하는 형식적 개념이 아니라 몸을 닦고 나라에 충성하고 사회에 공헌하여 그 이름이 후세에까지 찬양을 받도록 한다는 것을 보면 인생의 제일가는 덕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수원 증친회 相玉)

(앞면에 이어)

이고 文宗때에 王命으로 春秋館에서 편찬한 것이 “高麗史節要”(35冊)이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해 놓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고려조의 역사서적은 모두 소각시켜 버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들이 다 감추어지고 사적이 다 소멸되었다고 믿고 500년동안 통치를 하면서도 잘못된 역사를 지켜왔지만 진실은 사람의 힘으로 감추어지고 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의 바른 역사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렇게 감추고 잘못된 채 전하려고 했던 일들까지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조에서도 처음에는 野史형태로 고려의 진실된 역사가 나타나더니 점차 學者들의 文集이나 准역사서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고 역사를 잘못 쓴 과정까지도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려의 역사를 가장 폭넓게 기록한 것은 아무래도 정인지가 편찬한 “고려사”이기에 그 혁명세력이 쓴 內容中에서 신중한 통찰을 하지 않고도 사리에 맞지 않은 모순된 부분을 한 예로 들어본다.

고려사를 읽어 본 사람 중에는 이미 그 모순성을 지적했을지 모르나 지금까지 그 책

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 양도 방대하기에 독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아직 고려사를 읽어보지 않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다시 거론해 보고자 한다.

고려사 권제126 列傳중 “姦臣”란에 “廉興邦” 傳記가 나온다. 대체 간신이란 간사한 신하라는 뜻인데 고려사에서 간사한 신하로 분류되었다면 나라에 不忠한 신하이다.

전기의 내용을 보면 裴元龍이란 자가 아부해오기에 養子로 삼고 흥방에게 재물을 바치고 鷄林府尹이 되어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모았다 했고 동생과 함께 國務를 독단으로 처리하고 왕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고향집에 갔다가 사람들이 마당극으로 세도집 종들이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을 보고도 좋아했으며, 興邦의 家奴 李光이 조반의 땅을 뺏었는데 趙胖이 이를 흥방에게 고하자 돌려주었는데 또 李光이 그 땅을 빼앗자 조반은 병사를 이끌고 가 李光을 죽이고 그 집을 불질렀다.

흥방이 이 소식을 듣고 조반을 옥에 가두고 국문했다. 사건은 이것 뿐으로 趙胖이 신군부의 세력을 업고 책동하여 최영을 설득하고 이성계와 도모하여 廉氏一族의 전원을

학살한다. 고려사에서도 이 학살 진상을 말하여 廉氏一族은 물론 처가와 사위들까지 모두 죽이고 그 자손들도 죽였는데 심지어 강보에 쌓인 어린이까지 모두 강물에 던져 죽였고 가족들을 옥에 가두어 궁문하며 죽이고 처와 딸들은 모두 관비로 편입 하였는바 죽인 자가 모두 1,0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 들을 죽이면서 부정축재의 죄상을 거론했는데 사위인 任獻의 가산을 몰수하려 갔더니 집에는 곡식 한 섬의 저장도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고려사에서 “廉興邦”을 들어 재물을 약탈하여 부정으로 축재하며 나라 일을 혼자 독단으로 처리하였기에 이들을 다 죽이고 나니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만족하고 길에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다른 역사서를 한 번 보자.

조선 中期의 文臣이자 學者인 沈光世(1577~1624)는 말하기를 君不見 聖祖開國 策勳臣 盡是麗時食祿人(그대들은 보았는가 조선이 개국할 때 공을 세운 臣下들이 거의 다가 고려조에서 녹봉을 받던 자였음을)

여기에서 우리는 고려말 고

려를 섬기던 臣下들이 고려를 배반하고 대거 조선건국을 도왔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廉興邦”을 위시한 一族을 몰살할 때 주동이 되었던 當時 軍權의 一人者 崔瑩은 廉門一族을 戊辰正月에 학살하고 얼마나 미련했기에 6월에는 모시던 우왕도 자신도 귀양가서 죽으면서 한탄하기를 林, 廉의 소위가 분하여 그의 宗族을 모조리 베어 죽였는데 나는 평생에 악업을 짓지 않았으나 임견미, 엄홍방 일족을 베었던 일은 지나쳤다고 成俔(세종~연산군 연대 생존)이 그의 慵齋叢話에서 밝혔고 李瀼(1681-1763)은 그의 星湖僊說에서 기록하기를

國初에 崔恒, 申叔舟, 李石亭 등이 教旨를 받들어 撰註하기를 鄭夢周, 崔瑩은 滄海에 몸을 맡기고 사생을 돌보지 않는 자이고 權近 李穡은 中立하여 사태를 보아 공을 구차하게 피하는 자이며 林堅味, 廉興邦은 國祖에 反逆人이나 高麗에서는 順臣이며 趙浚, 趙胖은 國祖의 順臣이나 고려의 逆臣이다 라고 하였는데 諸公들은 고려에서 시대가 멀지 않으니 그 말은 단연코 믿을 수 있다. 그러나 林, 廉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 몸만 죽이는데 그쳐야 할뿐인데 연

좌되어 죽은 자가 어찌 1천여 인이나 되게 많은 말인가 라고 했다.

내용들을 음미하건데 後代에 와서 廉興邦(東亭公)을 고려사에서는 고려의 간신이고 방자하여 나라 일을 독단하고 재물을 긁어모은 비인도적 인물인데 얼마 안되어 廉興邦은 고려의 順臣이라 했다. 順臣이면 극악무도할 수 없고 나라에 不忠한 행동을 했을리 만무하다. 죽인 사람도 후회했고 後代人이 고려의 忠臣이었다 했는데 고려사에서 간신이었다는 언설이 거짓이고 모함이었다는 것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성계가 고려조에 반역하여 혁명을 한 시기를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해(1392년)로 보지 않는다.

1388년(戊辰) 正月에 혁명을 준비하던 이성계 일파는 혁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廉門一族과 이를 따르던 사람들을 무참히 누명을 씌워 대량 학살하고 이해 4月에는 遼東征伐에 出軍하고 威化島에서 回軍하여 바로 우왕과 崔瑩을 귀양보내고 國政을 自意로 전단한다.

後世 申欽이 말한 大抵麗之亡由於 戊辰之廢王(대저 고려가 망한 동인이 무진년에 우왕을 폐한데 부터이다)

大宗會 역대 회장

발족	1980. 7. 15	(경기도 양주 수동)
초대	泰勳	1980. 11. 11 선임 1982. 3. 23 사임
2대	東鎬	1982. 3. 23 계승 1984. 4. 18 재선임
3대	泰勳	1987. 4. 18 선임 1988. 5. 7 병고사임
4대	基奉	1988. 5. 7 선임 1990. 3. 31 임기만료
5대	在熙	1990. 3. 31 선임
6대	"	1993. 3. 13 재선임
7대	珪澤	1996. 3. 30 선임
8대	"	1999. 4. 10 재선임
9대	"	2002. 4. 13 잠정 중임

우리문중에도 家訓은 있다

어느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가 학교 숙제라면서 우리 시조는 누구이며 가훈이 무엇 이냐고 물어왔다.

무엇을 가르쳐 줄까 하고 일순 당황했다. 그저 대동보(1986년 8월 발행) 문헌록 첫머리에 있는대로 -국파선

조 유훈 - 효도하고 충성하며(忠孝爲節) 우애하고 화목하며(敦睦爲業) 허영심을 내지 말고(虛榮不求) 빈한해도 즐겨하라(安貧自娛) 라고 가르쳐 주자니 조금 미심한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원문의 출처를 모르고 어떠한 경위로

언제부터 써 왔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동보(1986. 8. 25) 문헌록 폐와공 행적(閉窩公行蹟)에 보면

전략 — 임종하는 날 자손들에게 유계하여 이르기를 충효로 근본을 삼고 경학으로 업을 삼아 문호를 보전하고 과제(과거보는 일)를 일 삼지 말 것이며 관작과 영달을 구하지 말고 화욕을 멀리하라. 지금 우리 집안 형제들이 충효를 세습하되 청한으로 업을 삼은 것은 유래가 있어서이다.

(臨終之日 遺戒子孫曰 忠孝爲本 經學爲業 以保門戶 勿事科第 勿求官達 以遠禍辱 至今吾門 諸昆之世襲 忠孝 清寒爲業者 有所由來矣)

내용에 보면 우리 문중 4세 할아버지이신 휘, 이(怡)의 위 글중 '충효를 세습하되 청한으로 업을 삼은 것이 그 유래에 있어서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다. 비록 글귀는 폐와공의 유계라며 전해지고

있지만 이 글의 핵심문구는 세습된 글귀이고 또 유래가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보다 상계 할아버지부터 유래된 문구라고 보아도 해석에 무리는 없을 듯 하다. 한다면 옆씨 선조 제일 윗분의 글로서 남은 유계는 현재로서는 이것 뿐이다.

가훈이라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조심하라며 타이르는 말씀을 말한다. 가훈적인 것은 가범(家範), 가헌(家憲), 가규(家規) 또는 자경문(自警文)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한 집안에 가훈이 있다는 것은 집안의 자랑이고 그 집안의 위격이 돌아 보이는 듯도 하다. 그 후손들이 평소 지키고 가르침의 지표로 삼으니 시작의 해가 길고 일반에게도 가르침의 연구가 되면 더욱 값지게 여겼다.

가훈이라고 꼭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고조부, 증조부는 물론 조부나 아버지도 가훈을 정하고 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李氏朝鮮의 建設운동의 첫 野心은 戊辰년 正月 廉門一族의 학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碧江)

과주 염문의 가훈이라면 귀중한 자료가 있으니 대종회 차원에서 확정하고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秀東 대종회 부회장)

편집후기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른가. 가을이 되니 대종회 창설 초기에 활동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난다. 터잡아 주신후 뒷자리를 이어줄 50~60대의 중견들의 참여와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이번 宗報는 과거를 뒤돌아보는 생각을 많이 하여 외롭게 썼는바 다음에는 더욱 설레이는 기사가 많도록 기원해 보자.

(편집인)